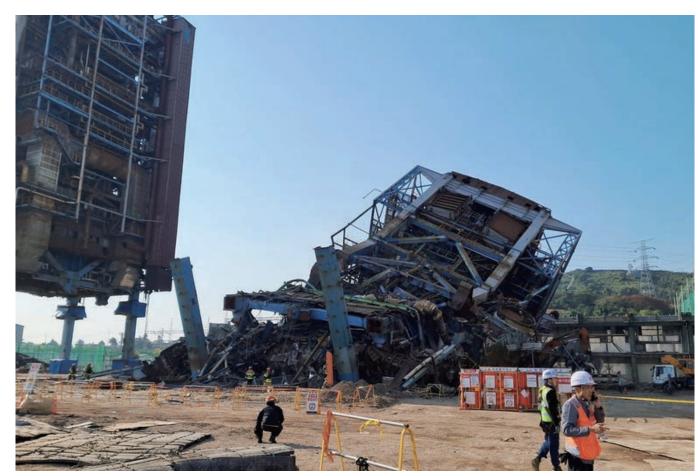




## 세계타임조

☎ 대표전화: 1661-8385 www.thesegye.com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제 3246호〉

##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철거 중 붕괴…"2명 구조·7명 매몰"



6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대형 구조물이 무너져있다. 2025.11.6 [울산소방본부 제공]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 남구 용잠 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 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2명을 구조했으며, 현재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

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구 조 작업 중이다.

## 노후화로 지난달부터 철거 작업…당국, 매몰자 수색·구조작업 총력 40년 넘은 노후 60m 보일러 타워, 철거 중 무너져…매몰자 구조 시간 걸릴 듯

경찰관 60여 명도 현장에 동원됐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철재 구조 물로 지난달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 중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에는 발파업체가 동원됐으며, 현 재 매몰된 작업자 모두 협력업체 소속

재 배출된 작업자 모두 업력업체 소독 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보일러 타워는 전력 생산 위한 터빈을 돌리는 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

화해 철거가 결정됐다. "쾅 해서 쳐다보니까 먼지가 훅 나면 서 무너지더라고."

는 설비다. 30년가량 사용되다가 노후

6일 오후 붕괴 사고가 일어난 울산 남 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는 마치 폭격당한 듯했다

사고 현장 취재를 위해 정문을 통과 하려 하자 발전소 측 직원들은 국가 보 안시설이라며 취재진 출입을 막았다.

2m 높이의 담장 너머로 목격한 발전 소 내부는 마치 방금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다.2개의 멀쩡한 보일러 타워 사이 로 산산이 부서진 유사한 종류의 타워가 눈에 들어왔다.

철제 구조물로 이뤄진 타워 하부가 완전히 붕괴해 철골들이 첩첩이 산을 이뤘고, 타워 윗부분만이 겨우 형태를 유지한 채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진 상태 다

고 현장 근처 방파제에서 만난 낚시 꾼 A(60대)씨는 붕괴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A씨는 "쾅' 소리가 들려서 돌 아보니까 타워가 무너지고 있었다"며 " 원래 주변에 다른 타워들과 똑같이 세 워져 있었던 타워"라고 설명했다.

큰 소리에 놀라서 쳐다보니 먼지가 훅 나면서 넘어지더라"며 "타워를 폭파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게 오늘 인가 했는데, 좀 있으니 소방차와 구급 차가 막 오길래 그때야 사고가 난 줄 알 았다"고 전했다.

발전소 직원 B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건물에 있었는데 갑자기 '콰르릉' 소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멀리서 보니 건물이 무너져서 깜짝 놀랐다"며 "해체 작업을 앞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지난달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보일러 타워는 전력 생산 위한 터 빈을 돌리는 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는 44년 된 설비로,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결정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구 조 작업 중이다.

국가소방동원령도 발령됐다.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높이 60m의 대형 구조 물인 데다가 철재로 돼 있어 이를 잘라 가며 매몰자를 모두 구조하는 데는 상 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 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소 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 명을 구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장성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취임 첫 광주 방문 "시민단체 반발에 5·18묘지 참배불발"

내란정당 해산' 구호속 출입저지…방명록도 못 쓰고 19분 만에 발길 돌려

張 "5·18정신은 모두의 것, 진정성 보일 것 매달 호남 방문 약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지역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제대로 참배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 주의를 위해 스러져간 5월 영령들 앞에 고개 숙이겠다"고 말한 뒤 취임 후 처음 으로 호남을 방문했지만, 차가운 호남 민심만 확인한 셈이 됐다.

장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 부가 이날 오후 묘지에 도착하자 광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장 대표 등을 둘러싸고 출입을 막았다.

장동혁은 물러나라", "내란 정당 해 산하라"를 외치며 장 대표 출입을 거세 게 저지했고, 장 대표는 입구에서 방명 록도 적지 못한 채 경찰 호위를 받으며 5·18민중항쟁추모탑으로 걸음을 옮겼 다.

일부 단체 관계자는 장 대표의 옷을 잡아당기며 참배를 막았고, 경찰과 단 체 관계자, 당직자들이 뒤엉키며 현장 은 아수라장이 됐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거센 저항에 이동이 어려워지자 결국 추모탑 정면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추모 탑을 향해 30초가량 묵념했다.

헌화 및 분향은 하지 못했다. 묵념을 마친 장 대표 등이 버스를 타기 위해 돌 아가는 길에도 "뭐가 당당하다고 광주 옵니까", "꺼져라" 등의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묘지 도착 19분 만에 버스를 타고 떠났다. 광주 81개 시 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한 장 대표는 사죄해야 한다"며 "과거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부장판사로서 재판을 사실상 지연시켰고, 윤석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이어 나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18 민주묘지 참배가 불발된 후 광주 북구의 복합쇼핑몰 건설 부지에서 취재진에게 "안타깝다"며 "5·18 정신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미래세대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은 불출석 재 판이 가능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포 기한 사건이어서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었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문제 에는 "탄핵 심판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 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기각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각각 설명했다이런 것들을 묘지 참배와 연결 해서 (참배를)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 다"고 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 이후 뭉쳐 싸우자고 한 발언을 번복할 생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뭉쳐 싸우자고 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5·18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첫 호남 일정부터 격한 민

심을 확인했지만, '진정성'을 내세워 호 남 민심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 이다.

대여 투쟁을 위한 장외 집회와 윤석 열 전 대통령 면회 등 강성 지지층 결집 에 주력했던 장 대표가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서진(西進) 정책'을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매달 1회 이상 호남을 방문 하고, 다음 달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 개 최를 검토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소 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당 강령 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있 다"며 "그럼에도 진정성이 아직 전달되 지 않은 것 같다.

저희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